

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, 기상사업자와 함께하는 기상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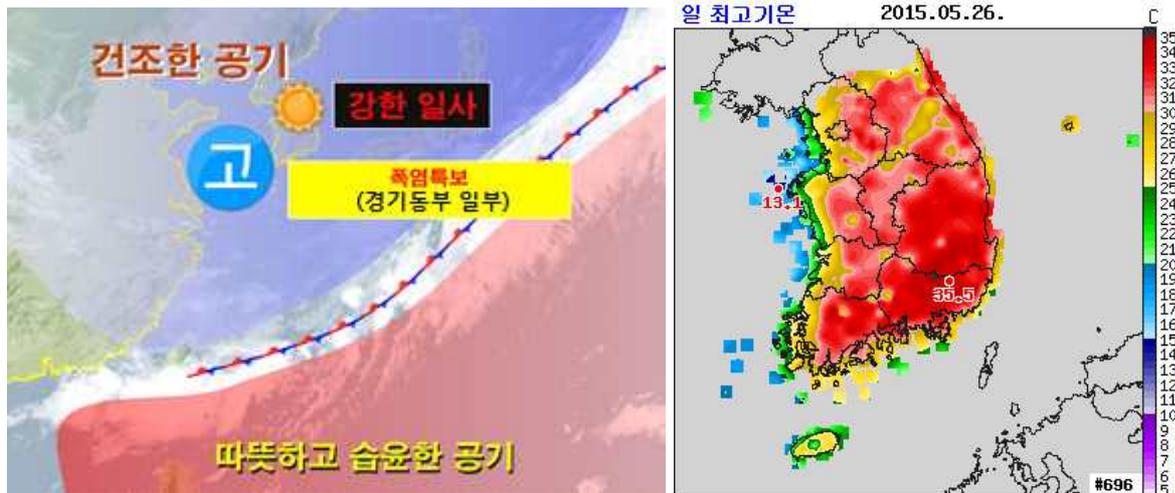
보도자료 Press Release



배포일시	2015. 5. 27. (수) 10:30 (총 2 매)	보도시점	죽 시
담당부서	수도권기상청 관측예보과	담당자	예보관 윤 기 한 과 장 하 창 환
		전화번호	032-761-9968

29일(금)까지 더운 날씨 이어져 수도권지역 첫 폭염특보

- 강한 일사와 따뜻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고온 지속
- 30일(토)은 서울·인천·경기도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일시 누그러짐



< 최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> < 5월 26일 낮 최고기온 분포 >

□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중북부지방에 상층 기압능이 폭넓게 위치한 가운데, 서해상에 지상고기압이 계속 위치하면서 따뜻한 서풍류가 유입되고, 낮 동안 강한 일사로 기온이 올라 서울·경기도는 평년보다 높은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음

※ 5월 26일 주요 지점 낮 최고 기온(평년값 단위: °C)
 - 서울 30.3(24.3) 인천 23.1(22.7) 수원 29.6(24.2) 이천 31.6(25.3) 양평 31.4(25.1)
 동두천 31.1(25.4) 파주 29.0(-)

□ 특히, 경기동부내륙과 일부 경기남부내륙에서 오늘과 내일 낮 최고 기온이 33℃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폭염특보(10시 발표/11시 발효)가 발표되었음

※ 폭염특보: 일 최고기온이 33℃(35℃)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(경보) 발표. 기후변화로 더위가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, 기상청은 6월~9월에 한하여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올해부터 연중으로 확대하여 운영 함

□ 이번 더위는 덥고 습한 전형적인 여름철 더위와 달리, 대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낮에는 일사에 의해 30℃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 덥고, 야간에는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에 다소 선선한 날씨를 보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℃ 이상 크게 벌어지는 경향을 보임

□ 29일(금)까지는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울·경기도에서 낮 최고기온이 30℃를 웃돌며 더위가 지속되겠고,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, 야외활동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

□ 30일(토)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·인천·경기도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일시 누그러지겠음